## 1-1 Activity: Question Reframing

Question Reframing 이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재구성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에는 개인의 편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자리한 편견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Reframing을 통해 문제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 ·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문제를 둘러싼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 예시: 어떻게 하면 집안 청소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 → 우리 주변환경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어떻게 하면 나와 가족이 더욱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 · 이미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우리가 당연시 하는 것에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어떻게 하면 집안 청소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 → 우리는 왜 청소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우리가 정의하는 효율은 무엇일까?
- ·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피기:

문제 해결에 앞서, 문제를 이루는 부분적인 요소를 나열합니다.

- 예시: 어떻게 하면 집안 청소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 → 청소 도구, 청소 빈도, 청소 시간대, 청소 당번, 청소 방식, 청소를 하는 사람의 감정, 집의 구조, 청소 전 준비과정, 청소 후 마무리 활동

·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지파악해 봅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현상을 문제화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어떻게 하면 집안 청소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 → 어떻게 하면 청소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 왜 유독 청소에 있어 편하고 효율적인 것을 찾는 것일까? / 청소 외에 나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 · 기술적, 현실적 한계에서 벗어나 이상향 세우기:

문제 해결시 어떤 이상적 결과를 원하는지 떠올려 현 상황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 예시: 어떻게 하면 집안 청소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 → 청소 과정 없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느껴지면 좋겠다. 청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소 과정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Question Reframing만으로도 문제 해결 방향성을 찾아낸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1994년 P&G는 힘겹고 부담스러운 걸레질의 대안을 발굴하여 청소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정용 청소도구 Swiffer가 바로 올바른 문제 재구성을 통해 탄생한 제품입니다.

Question Reframing을 통해 청소에 대한 다음의 문제 해결 실마리를 얻어 Swiffer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 사람들이 청소를 단순히 바닥 청결의 문제가 아닌 청소하는 사람의 위생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하여 청소에 부담감을 느껴졌다는 점
- ◎ 걸레에 물을 적시는 준비 과정, 더러운 걸레를 빨아 청소를 마무리하는 과정 등 쾌적한 환경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자체가 비위생적이며 불쾌함을 준다는 점
- ◎ 청소가 복합적 과제라는 점: 물건을 옮기고, 빗자루질을 한 뒤, 걸레질을 하고, 건조시키는 작업과 시간이 필요